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사41:10-14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 19, 코비드 19 발병과 확산으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교회도 3월 1일부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당황스럽다.

허둥지둥 대는 가운데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았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일단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건강, 가정, 재정, 믿음, 국가, 시103을 읽어 보라.

오늘은 2020년 코비드 19의 의미를 생각하며 1년을 마감하려고 한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지난 70년,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번영을 누린 기간

지난 20년, 초고속 인터넷, 핸드폰, 초고속 비행기, 자동차 등

세상이 하나로 엮이며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지 생각해 보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절대적인 가치

부인, 동성애의 창궐, LGBT 문화,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징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확산,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계

코비드 19

세상 사람들이 정신없이 여기로 빨려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 19를 주심

일종의 감기, 감기는 치사율이 없다. 그런데 코로나 19는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다. 기저 질환 환자에게는

치명타,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없다. 아주 묘하다.

그럼에도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온다.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

1년을 마감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이번의 코로나 19 사태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다. 경중을 올리고 있다. 인간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인간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라고

그분 앞에 모두 서서 회계보고 해야 함을 알려준다.

이런 차원에서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서 41장, 바빌론 포로 생활 간 유대인들, 재림의 때에 온 세상에 퍼져 있다가 다시 돌아올

4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한다.

1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며 이국땅에서 고생하며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을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되기 150년

전쯤에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바빌론 포로 생활 하고 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

10절을 기억하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3절을 기억하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4절을 기억하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8절 때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사람

창15:6의 믿음 고백을 한 사람들, 구원이 확실한가?

신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주어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온다. 63회

왜 주님은 이 말을 많이 기록하셨을까?

인간이 살면서 두려운 일을 많이 당하기 때문이다.

창15:1, 아브라함

창21:17, 하갈

창26:24, 이삭

창46:3, 야곱
수8:1, 여호수아
수6:23, 기드온
이사야서 8번
마1:20, 요셉,
눅1:30, 마리아
눅12:32 주님의 말씀
행27:24, 바울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한다.
그때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왜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

유튜브의 책 읽는 사자, 네이버 블로그에도 책 읽는 사자, 젊은 분이 좋은 글을 많이 쓴다.
어제 12월 30일, <그리스도인의 연단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십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단]의 사전적 정의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또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입니다.

연단의 특징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어그러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의문, 억울함 등 [내면의 찢어지는 괴로움]이 하나님의 연단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이토록 훈련하실까요.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중 하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라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고통이 참으로 유익하다 고백합니다. 매우 역설적이지요. 연단 중에는 그토록 괴로웠는데 말입니다. 읊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 고통을 매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단을 통해 내 고통과 상관없이 한없이 태평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무 이유 없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셨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고통을 감내하신 분을 만나다.

연단을 통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훈련하신 만큼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에 동의한다(시119:71).

결론

오늘 올드랭싸인

2020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2021년을 맞이하자.

1.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2. 전부터 계시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3.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